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 ~ 6월 30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62

<농업>

군인들과 근로자 농사일에 총 동원

<시장>

환율 안정화로 인해 내화(북한 돈) 사용 증가

北, 휘발유 가격 안정세

농촌지역까지 시장화 확산

국영농장, 돈주로부터 후불제(외상) 구입 증가

대외경제 64

<국제지원>

북한 비핵화 비용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북중관계>

대북제재 느슨해지며 밀무역 증가하고 북한관광 재개

<외국인투자>

북한 당국,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노력 본격화

<북방경제협력>

초국경 협력사업과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남북경제협력>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개최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농업>

뉴데일리(6.1), 데일리 NK(6.14)

군인들과 근로자 농사일에 총 동원

북한 내 근로자들과 군인들이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임. 소식통에 의하면 협동농장들은 모내기 전투를 기간 내 끝내기 위해 근로자를 총 동원하고 특히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동원하여 막바지 독려 작업에 힘쓰고 있다고 전함. 소식통은 또 해마다 시내 안의 모든 주민들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어려운 모내기를 끝낼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겪는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북한 군인들도 군 당국에 의해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임. 소식통은 관하(예하)부대들은 한 사람당 하루 150g의 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콩 농사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부대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함. 중앙에서는 콩 농사의 결과는 싸움(전쟁)준비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콩 수확량에 따라 해당부대 지휘관과 정치 책임자, 후방책임자들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하였음. 그러나 북한 군인들은 휴식도 없이 농사에 동원되어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임.

<시장>

RFA(6.1, 6.6), 국민일보(6.28), 데일리 NK(6.8), 아시아경제(6.7)

환율 안정화로 인해 내화(북한 돈) 사용 증가

지난 수년 간 외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화(북한 돈)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임. 과거 북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거래할 경우 달러나 위안화 등의 외화를 이용하고 거스름돈과 같은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내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환전상을 통해 언제든지 안정된 환율로 환전이 가능해지자 택시와 식당 등 소액 거래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동기 같은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도 내화로 거래하는 것으로 전해짐. 다만 중국과의 공식무역과 밀무역에서는 여전히 위안화나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임.

北, 휘발유 가격 안정세

최근 북한의 휘발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가격 또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과거 1kg 당 2.5달러에 육박하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평양 기준으로 1.7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휘발유 공급이 어려워 작년부턴 운행이 중지되었던 장거리 버스들도 다시 운행 중이라고 함. 이러한 휘발유 공급 개선 배경과 관련하여, 한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에 위치한 빠산 저유소의 대북 원유 송유량 증가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기름을 환적 하는 중국선박의 증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농촌지역까지 시장화 확산

최근 북한에서 동, 리 단위의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의 건설장 근처 지역 농장마을까지 노점장사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임. 북한에서 노점장사는 돈이 없어 매대를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설치된 종합시장 울타리 주변에서 하던 장사 행태이나, 최근에는 농촌지역 곳곳에 노점장사 형태의 길거리 시장이 많아 졌다는 관측임. 이에 과거 도시에 나가야만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도시지역 사람들 또한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한 대북소식통은 설명함. 이러한 시장 확산 배경에는 달리기꾼들(유통업자)과 씨비차(사람과 물건을 날라주는 차량)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임.

국영농장, 돈주로부터 후불제(외상) 구입 증가

북한 당국이 국영농장들에게 봄철 모내기엔 필요한 트랙터(트랙터)와 모 이앙기의 연유 공급을 해주지 못하자 개별 국영농장들이 후불제로 기름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임. 이 후불제는 외상과 같은 개념으로 가을에 생산된 알곡 현물로 두 배 가격으로 계산해 갚는 방식임. 고난의 행군 이후 국영농장들은 봄철에 개인 돈주로부터 비닐박막, 비료, 살초제 등을 장마당에서 구입해 농사를 지어 왔으나, 중앙에서 개인이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는 이러한 후불제 거래가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흥년에 상관없이 정보당 수확고를 계산해 균량미를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영농장들도 개인 돈주에게 알곡 현물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대외경제

<국제지원>

서울경제(6.5), 한국경제(6.5), 머니투데이(6.7), 국민일보(6.14)

북한 비핵화 비용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주체로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하고, 비핵화에 소요될 비용 역시 한국과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함. 이에 국내에서는 한국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단계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은 북핵·미사일과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을 조건으로 비핵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핵시설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반출 등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과 비핵화 대가로 제공할 경제적 지원액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경우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신포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하 바 있음. 이와 비슷하게 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경제협력과 무역을 통해 투자를 해야하는 한국, 중국과 달리 북일 수교를 계기로 북한에 직접 현금을 지원할 수 있어 주목 받는 대북 경제지원 주체임. 일본이 제공할 전후 배상금은 100억~200억 규모일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또한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비핵화 과정에 대한 IAEA 검증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초기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북중관계>

국민일보(6.15), 동아일보(6.19), 세계일보(6.15), Daily NK(6.6), RFA(6.8, 6.11, 6.27), VOA(6.21)

대북제재 느슨해지며 밀무역 증가하고 북한관광 재개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북미관계도 풀려갈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적용이 유연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 중국 세관이 북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색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경지역 공안과 변방대의 단속도 5월부터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전해짐. 그에 따라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인 철, 비철금속, 약품, 수산물 등을 중국에 밀수출 하고, 북한 근로자 고용과 북-중간 임가공 암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미국과 입장을 보임.

북한 단체관광도 전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송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전시 예비물자인 디젤기관차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7월에는 북한 고려항공의 평양-시안 정기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보도임.

〈외국인 투자〉

동아일보(6.25), 아시아경제(6.25)

북한 당국,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노력 본격화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부터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 및 해외동포 투자금 유치에 나섬.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평양, 백두산, 개성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원산-금강산 지구의 개발 계획을 상세히 밝히며 투자를 권장함. 구체적으로는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은 지구 내에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노동력 채용과 토지 이용, 관세, 세금 납부 등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국가보위성은 중국인 투자자가 개입된 모든 합작업체들의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지 소식통들은 본격적인 중국인 투자 유치에 앞서 당국이 합작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정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진단함.

〈북방경제협력〉

국민일보(6.19), 아주경제(6.25)

초국경 협력사업과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신(新)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14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함. 남북경제 협력의 안정적인 여건과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에 따라,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대상에 오름.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를 목표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슈퍼그리드 구축과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제시됨. 또한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철도·전력·가스 분야의 연구를 위해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함.

〈남북경제협력〉

노컷뉴스(6.29), 조선일보(6.29)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개최

남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서 26일과 28일 각각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함.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철도 부문은 7월 24일부터, 도로 부문은 8월 초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현대화의 범위와 수준, 일정 등에 관해서는 2008년에 진행했던 지난 회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철도 부문에서는 7월 중순에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설계·공사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대책들도 세워나가기로 함. 도로 부문에서는 현대화 대상 구간을 경의의 개성-평양, 동해선의 고성-원산 구간으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또한 양 부문 모두 준비 경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6.4, 6.14, 6.27)

아래 표는 6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연해주 지역 고려인 단체협의회 (러시아)	2018.6.11	밀	150톤	철도편을 활용해 함경도 지역에 지원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2017.1 ~2018.7	식량과 영양제, 마을현대화를 위한 인적 및 사회적 지원	21만 달러 예정	평양 인근의 농촌마을 3곳 을 대상으로 진행
유엔중양긴급구호기금(CERF)	2016	식량 및 식수	1,300만 달러	주로 가뭄 피해를 입은 주 민들의 식량 마련을 위해 쓰임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6.01] 북 국영농장들, 장사꾼으로부터 연유를 후불제로 구입해 사용 (RFA)
- [2018.6.01] ‘콩 농사’ 때문에 휴일에도 못 쉬는 북한군 (뉴데일리)
- [2018.6.01] 북, 휘발유 수급안정으로 가격 하락 (RFA)
- [2018.6.04] UNINO “북 농촌지원 사업 진행 중” (RFA)
- [2018.6.05] 北 경제 재건, 日 ‘전후 배상금’으로? (서울경제)
- [2018.6.05] 北 핵폐기 대가 수백兆 필요한데…한국이 70% 이상 떠안을 수도 (한국경제)
- [2018.6.06] “中 단둥에서도 대북 밀무역 활발…中당국 단속 느슨해져” (Daily NK)
- [2018.6.06] 북, 환율시장 안정으로 내화 유통 잘 돼 (RFA)
- [2018.6.07] 코흘리개도 외면했던 북한 돈, 유통 점차 늘어 (아시아경제)
- [2018.6.07] 北 경제지원 주도권은? 美 트럼프플랜 vs 中 일대일로 (머니투데이)
- [2018.6.08] 北북 원산관광지구 건설장 근처에도 노점상이..“곳곳이 시장” (데일리 NK)
- [2018.6.08] 중국의 단속완화에 북-중간 밀무역 성행 (RFA)
- [2018.6.08] 北 모내기 전투 막바지 “시내 안 근로자 총 동원” (데일리 NK)
- [2018.6.11] 당국의 목인아래 북-중간 임가공 음성 거래 증가 (RFA)
- [2018.6.14] 러시아, 북한에 열차편으로 밀 150톤 지원 (RFA)
- [2018.6.14] 日 “IAEA 검증 재개되면 북한 비핵화 비용 지원” (국민일보)
- [2018.6.15] “中세관, 北화물·여행자 검색 완화 조짐” (세계일보)
- [2018.6.15] 中·러 “대북 제재 해제” 한목소리 (국민일보)
- [2018.6.19] 북방경제협력위, 신북방정책 14개 과제 발표 (국민일보)
- [2018.6.19] 제재 그물 느슨해진 北中 접경…이달만 北근로자 100명 급증 (동아일보)
- [2018.6.21] 북한 고려항공, 평양-중국 시안 정기 노선 7월 개통 (VOA)
- [2018.6.25] 남·북·러 ‘新 경제지도’ 밑그림 그렸다 (아주경제)
- [2018.6.25] 北, 원산-금강산 투자유치 본격 홍보 “외국인 세금 등 특혜 보장” (동아일보)
- [2018.6.25] 北, 중국인 투자유치 위한 사전 정비작업 돌입 (아시아경제)
- [2018.6.27] CERF, 2016년 대북 긴급지원 1,300만불 (RFA)
- [2018.6.27] 북, 중국 관광객 수송 위해 전시 예비물자인 디젤기관차 동원 (RFA)
- [2018.6.28] 북한 ‘생명줄’은 역시 중러였다… 올해 1~4월 북한에 석유제품 8600t 공급 (국민일보)
- [2018.6.29] 개성~평양, 고성~원산 길 다시 닦는다 (조선일보)
- [2018.6.29] 남북, 구체적 철도·도로 합의로 ‘액션 플랜’ 돌입 준비 (노컷뉴스)